

예수그리스도안에 있는

일곱가지 축복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7 가지 축복

JOY CHURCH

목 차

- 새 생명과 안식으로의 초청 .. 5
- 첫째 축복 「초월적 기쁨과 평안」 .. 12
- 둘째 축복 「죄 용서와 해방」 .. 14
- 셋째 축복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짐」 .. 18
- 넷째 축복 「넘쳐는 하나님의 은혜」 .. 24
- 다섯째 축복 「확신에 찬 인생」 .. 27
- 여섯째 축복 「영생의 구원 열차로 갈아탐」 .. 30
- 일곱째 축복 「천국의 소망과 약속」 .. 34

● 현대인들의 고독

오늘날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직장이나 가정 학교에서의 업무 스트레스, 인간 관계등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어 살아가는 이유는 물론 기쁨이나 평안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 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을 접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사람간의 소통이 희미해져 가면서 그야말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SNS의 확대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유대를 확인함으로써 고독으로부터 해방되고 마음의 공허함을 채움 받고 싶어하는 인간 심리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독이 온전히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무거운 짐진자들의 고통

예수님은 지치고 고통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 말씀처럼 현대인들에게는 짊어져야 할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짐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 수고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어 마음은 큰 상처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쉽게 자기의 고통을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짐을 지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모두를 위하여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외롭게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고통을 자유롭게 털어놓고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위로와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나 친구를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기대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 공통의 원초적 고통의 짐

조금전에 이야기 한것 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각자가 짊어져야 할 수고와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

만 그중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원초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불확실성이며 이것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에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없이 죄라고 하는 영적인 불치병에 걸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그분의 영광스런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채 고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죄악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 너무도 무거운 짐이라고 다음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38 :4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었던 다윗왕은 그의 죄의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무게는 너무도 무거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감각이 죽었거나 마비된 사람들은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못느낀다고 하여 내가 죄없는 깨

곳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후에라도 반드시 죄의 고통은 오게 될 것입니다.

●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죄의 짐

우리는 때때로 죽음은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됨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다거나 혹은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도 나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과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 : 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은 모든 것의 끝도 아니며 또한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천국이나 혹은 지옥의 어디에선가 우리는 영원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에게 따라서는 심판후 영원한 지옥의 고

통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았는데 죽은 후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고통을 또 다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어진 참 안식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마태복음 11 장 28 장에서 희망의 구원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짐은 물론 우리가 영원히 자력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죄로 인한 죽음, 그후의 심판과 형벌이라는 무거운 고통에 들어가야 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안식의 구원을 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진정성과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로마 5 :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죄의 짐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

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말하면 우리 죄로 인한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도 멈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은 이생에서만이 아니라 죽음후에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 지옥에서의 고통에서 벗어나 참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의 메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장사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 나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함으로 다른 신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참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통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안식과 구원으로의 초대

마태복음 11 장 28 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에 응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당신 대신 죽어 주신 예수님을 당신의 죄와 형벌로부터의 구세주로 마음 속에 모셔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분은 당신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쉼, 즉 죄용서와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 분을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7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초월적 기쁨과 평안
- 죄 용서와 해방
-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짐
- 넘쳐는 하나님의 은혜
- 확신에 찬 인생
- 영생의 구원열차로 갈아탐
- 천국의 소망과 약속

이러한 축복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됩니다. 그 누구도 그 대가를 다 지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나 그 어떤 고상한 선행으로도 살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 선물 이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1 초월적 기쁨과 평안 . . .

요한복음 14 : 27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런저런 불안, 엄청난 스트레스, 갈등과 긴장과의 싸움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 질병이나 사고, 살인, 끊이지 않는 전쟁이나 테러 등의 공포 속에서 매일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디모데후서 3:1)의 말씀처럼 지금의 이 시대는 마음이 비명을 지르는 고통의 종말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세상의 것과는 다른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야말로 삶의 고통과 시련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려움이 없는 일시적
안심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솟아나는 참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
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위의 말씀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하나님의 평강으
로 충만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돈과 쾌락,
명예 등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일시
적인 것입니다. 샘물처럼 솟구치는 기쁨이 아니라 흘러
가는 강물처럼 잠시 스쳐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을 의존하면 언젠가는 그것들이 반드시 당신을 배신하
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진정한 평안
을 누릴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당신을 위해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버리신 사
랑 그 자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
히 변하지 않을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 속에 이런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으
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진정한 평안속에서 살아 갈 수 있을 것입
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죄와 악, 어둠, 불안과 공포로부
터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2 죄 용서와 해방

예레미야 17 :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
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이 말씀은 세상
에서 가장 부패
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지
적하고 있습니
다. 그 부패의
씨앗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죄성(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본성)입니다. 이 죄성이라고 하는 죄의 씨앗에서 수많은 악, 예를 들어, 전쟁, 싸움, 증오, 살인, 불행, 불안, 고통, 복수, 저주, 죽음, 불신, 불화 등의 모든 어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세상은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죄악을 생산하는 죄의 공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좋은 면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인간은 누구도 이런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편 죄는 절대 편리하거나 즐거운 것이 아니며 영원히 당신을 따라다니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잔인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죄 용서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과 참기쁨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인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당신을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 : 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인간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있다면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다음 말씀에는 인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되는 축복과 행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 : 7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우리 인간은 일견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것에 매여 있는 노예입니다.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몸은 자유롭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과 불안,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존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 돈과 쾌락에 대한 탐욕, 다양한 미신 등으로 인하여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다음 성경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32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한가지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야 할 것은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죄를 용서하지 않는 완고함은 자신의 영혼에 독약을 주입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 즉 용서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자신이 용서받았던 체험적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 용서를 위해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셔들임으로 당신은 구원 받고 죄에서 용서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질러 버린 죄, 앞으로 짓게 될 죄의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자기 스스로 죄의 형벌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온전한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범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나 이미 저질러 버린 죄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신의 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을 길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당신의 인생도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3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짐 ·

요한복음 3 :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위의 성경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벌을 받아 죽게 하신 것으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월적이고 감동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무심하게도 죄와 악에 물들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 :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훌륭한 사람이나 죄가 없는 사람,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요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굶주린 인간은 늘 자기를 조건없이 사랑해주는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갈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을 만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네 가지 헬라어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로스(자기 중심적인 사랑), 아가페(이타적인 사랑), 필레오(우정), 스톨게(부모와 자식 같은 본능적인 사랑)의 네가지 사랑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랑이란 단어일지라도 그 동기에 따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즉, 그 동기가 자기 중심적인가(에로스), 타인 중심적인가(아가페)에 따라 사랑의 본질이 완전히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가페 같은 사랑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신 에로스의 사랑이 범람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올바르게 구별하지 못하여 현혹되어거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그 본질은 에로스(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에로스가 교묘하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포장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만족을 이해 타인을 이용하려는 에로스에 의한 사랑의 사기입니다. 이런 사랑의 분별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사랑에 농락당하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본성적으로 모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그 위험성을 잘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결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아가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분은 죄인인 인간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본받고자 하는 곳이 교회이자 크리스천입니다. 한계는 있지만, 진정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해보고자 하는 사람이나 교회야말로 이 냉혹한 사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에게 최후의 보루이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현대 사회에 퍼져있는 종교에 대한 불신, 편견, 선입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에 접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종교를 보아도 예수님 외에는 그 종교의 정점에 있는 존재가 인간의 죄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종교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사랑을 크게 3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조건이 따르는 'If의 사랑', 자격이 필요한 'Because의 사랑', 무조건적인 'In spite of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당신이 무언가를 해 준다면,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준다면 나 또한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조건부 사랑이 'If(만일)의 사랑'입니다. 반면에 당신은 머리가 좋으니까, 예쁘니까, 멋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당신

을 사랑한다는 식의 이유와 자격이 붙는 사랑을 ‘Because(때문에)의 사랑’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은 그것들과는 다른 ‘In spite of(불구하고)의 사랑’ 입니다. ‘조건이나 이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가나 조건도 요구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참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을 인정해 주고 사랑의 눈으로 봐 주기를 기대합니다. 어린이, 성인, 노인, 남녀를 불문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으로 충족되지 못하면 마음이 왜곡되고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에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비교하고 조건을 붙이며 사람들에게 우열의 라벨을 붙입니다. 이러한 조직과 사회속에서 사람들은 지쳐버릴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조차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의 경우는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회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찾지 못함으로써 많은 좌절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존재와 보배로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 : 4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삶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창조되었으며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도 우열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곳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당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분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랑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도 물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사랑과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4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 ·

에베소서 2 : 8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은혜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구원

이나 죄사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감사가 솟구침과 동시에 따뜻한 감동과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물론 당신의 마음의 상처도 자연스럽게 치유될 것입니다. 이 은혜는 당신의 상태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일방적인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2 장 8, 9 절의 말씀은 우리가 죄에서 용서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나 노력, 인격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

으로 주어진 것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큰 희생을 감수하고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아낌 없이 퍼부어 주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종교들이 선한 행실과 덕을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것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과 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지만 행위로 구원 받을 만한 완벽한 인간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자신을 죄와 죽음에서 구할 힘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죄에 빠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구원 받을 속셈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보은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선행이야말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구원받기 위해 선행까지 강요한다면 마음의 짐이 늘어날 뿐 결코 구원과 치유, 평안과 용서의 기쁨을 누릴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를 계속 요구하고 자신을 지배하려 한다고 생각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인간을 결코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 낸 온갖 종류의 신들은 인간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그런 신을 아무리 섬긴다 해도 사랑이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과 마귀의 포로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구원받기에 충분한 선행과 덕을 쌓기는 커녕 죄악을 쌓기 일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죄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커녕 절망에 이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용서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죽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 :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5 확신에 찬 인생

데살로니가전서 1 : 5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은 말뿐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돕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당신속의 두려움이나 불안, 공허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과 용기, 희망과 비전,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와 미신과 같은 속박에서부터도 해방될 것입니다.

늘 확신이 없고 불안정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담대함과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삶의 희망과 목표를 잃고 방황하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슴 벅찬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존재에 대한 불안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유명한 믿음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요 패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민하며 그러한 자신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9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 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바울은 연약함이야말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의 미학'을 깨달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할 때 우리를 도와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연약함을 이용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교만한 능력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랑까지는 못해도 자신의 연약함을 미워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 위하여는 자기 과시나 자기 만족보다도 연약함과 겸손이라는 덕목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연약함이 능력으로 바뀌고 부끄러움이 자랑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6 영생의 구원열차로 갈아탑

디모데후서 1 : 10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참된 생명, 풍성한 인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생은 물론 죽은 이후에도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위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죽음과 멸망을 없애고 영생을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의 육체의 생명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더 좋은 소멸되지 않는 새로운 생명, 즉 영생을 받아 영원한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은 후에도 심판 받지 않을 것이며 멸망의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다음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인간은 꽃병에 꽂혀있는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싱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꽃의 뿌리가 잘려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죽은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말라버릴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생명의 근원이자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꽃과 비슷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있어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거기에는 참된 생명,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여 주심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끊어졌던 당신의 뿌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 진정한 구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구원과 영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는 알 수 없다고 하여 손을 놓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쪽이 더 현명하고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면 고통스러운 삶 대신 행복한 삶을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생만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는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멋대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지금이야말로 죽음 이후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골든 타임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놓친다면 당신의 생명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는 크게 두 가지 삶만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천국에서 풍성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와 사탄과 같은 존재를 벌하기 위해 준비된

지옥에서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 영원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으며 70에서 80년 정도를 살면 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당신의 인생 열차는 잠시 후 죽음이라는 벽에 부딪혀 불타 버릴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당신은 영생, 즉 구원 열차로 갈아 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주신 구원 열차는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 줄 것입니다. 이 구원 열차로 갈아탈 수 있는 티켓은 돈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살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 열차 티켓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비싼 대가를 지불함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티켓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반신반의 할지 모르겠지만 그 티켓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에 틀림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 없게 되면 버리면 됩니다. 당신의 인생열차가 언제 마지막을 맞게 될지 모르지만 되도록 빨리 불안한 죽음의 열차에서 영생의 천국행 열차로 갈아 타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절벽에 마주치기전에 말입니다.

7 천국의 소망과 약속 . . .

디모데후서 4 : 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찌어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죽은 후에 천국으로 인도받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은

죽지만 더 완전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살게 되는 최고의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한 곳에서 영원을 보내야 한다고 이미 말한바 있습니다. 무(無)로 돌아간 다거나 신이 된다든지 하는 근거 없는 생각에 죽음 이후의 삶을 방치하는 것은 너무도 안이하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지금은 자기 스스로 가고 싶은 곳에 갈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내가 가고 싶은대로 갈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당신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 착각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혹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지 별로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을 뿐아니라 생각한다고 해도 지옥이 있다는 것은 믿거나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 쪽이 지금의 자기에게는 유리하고 자기합리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어디까지나 당신의 개인적인 희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거 없는 단순한 자기 추상적인 희망에 의존하기보다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더 확실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의 출발이며 죽음이후가 진정한 당신의 영원한 삶의 터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한 죽음이 될지 비참한 고통의 죽음이 될지는 지금 당신이 살아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천국은 상상을 초월한 기쁨과 은혜, 자유가 있고 더 이상 눈물과 고통, 죽음과 공포가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멋진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천국에 당신

을 초대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악육강식의 세상으로 무자비와 무질서, 사탄과 마귀가 뒤섞인 말할수 없는 고통, 씻을 수 없는 눈물과 슬픔, 그리고 후회와 신음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자유가 없을 뿐만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그곳에는 도망 칠 곳도 희망도 없는 완전한 심판 장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이 죽은 후에 지옥, 멸망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만은 없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뿐 만 아니라 죽은 이후의 영원까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죄와 심판,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구주로 받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 예수님은 당신에게로 찾아 오셨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 문 앞에서 열심히 지금도 그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다음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 : 20 볼찌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만약 당신이 마음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의 음성을 느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당신의 마음 속에 모셔들이기를 바랍니다. 다음의 기도문을 따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마음 속에 모셔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 여부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선택은 당신의 영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자신이 진정한 죄인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제 인생은 마귀와 사탄의 저주에 사로잡혀 늘 불안과 공포,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죄를 회개하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바꾸고자 합니다. 저의 죄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들이고자 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당신은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와 함께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실 것입니다. 이제 막 싹이 난

새생명이 잘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까운 교회나 교제에도 참가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의 선택도 존중합니다. 언젠가 다시 영접할 기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일곱가지 축복

저 자 : 강 석재 JOY CHURCH 담임목사

주 소 : 우편번호 812-0045 일본 후쿠오카시 하카타쿠 히
가시공원 4 - 5

전 화 : 81+092(643)5534

E-mail : joyskan@gmail.com